

## 이주가족복지회 벼룩시장 수익금 이웃돕기



(사)이주가족복지회(센터장 한신애) 소속 이주여성들이 아시아  
벼룩시장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독거노인에게 졸 쌀 5가마를 구입, 우산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주가족복지회 제공〉

## 광주여대, 대학양궁대회 종합우승 환영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정원)는 최근 순천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대학양궁오픈선수권대회 여대 부문에서 금메달 8개 중 4개를 획득해 개인전 및 단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한 광주여대 양궁부 환영식을 가졌다.

〈광주여대 제공〉

##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 명심보감 강연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김병조씨가 22일 광주 광산구 첨단2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첨단2동사무소 제공〉

## 광주 대학생 홍보대사 다문화가정 돋기 바자회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21일 오전 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다문화가정 기증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다문화가정을 뜻하는 '레인보우 데이'란 이름으로 마련한 이날 바자회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23명으로 구성된 광주은행 홍보대사들이 참가해 은행을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수 만든 헤어핀 등 악세서리와 커피 등 음료수를 판매했다.

광주은행 홍보대사들은 이날 모금한 100여만원으로 선물을 사조간 광주 북구의 '다문화가정사랑회'를 방문, 정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2009년 제4기 원드서핑 강좌=8월 1~31일까지 무안군 현경면 '광주전남요트학교 교육장', 문의 광주전남요트학교(062-514-7955)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irebaseio.or.kr

모집

▲나비엘 우산갤러리 여직원 모

집=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의료기 체험 여자 도우미(40~55세) 모집. 062-261-5875, 011-9614-3348.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술·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창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 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 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랑·가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도입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 불사조 321기) 011-633-574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

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

2850(전일간).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 생 모집=홈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리미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모

▲연성홈씨 재필·준필씨 부친상

=발인 24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유왕금씨 별세 선일(홍진기 연주부장)·선만(교부사 종령)·선덕((주)명성기업 영업이사)·선경·미나씨 부친상=발인 24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송준수씨 별세 병훈(화순경찰서)·영숙·정숙·순희·은숙씨 부친상=발인 23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박정암씨 별세 정명호·창호·도금·순금·종금씨 모친상=발인 23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김정호씨 별세 김부영·월순씨 모친상=발인 24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오옥임씨 별세 김선우·선태(디



## KIA 타이거즈 선행 3인방 떴다

안치홍, 1안타·1도루당 1만원씩 어린이 재단 후원

이종범, 상금·격려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용규, 안타·도루 한개당 2만원씩 적립 복지시설에

21일 KIA 타이거즈의 '투기' 안치홍이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어린이 재단과 결연식을 맺고 1안타 및 1도루당 각각 1만원씩 후원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구단과 팀 지정병원인 백은안과 21도 안치홍의 적립액수만큼 후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등 KIA의 기부문화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신인 선수로서 선행에 나서게 된 안치홍은 "언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 몰랐다"면서도 "작은 성정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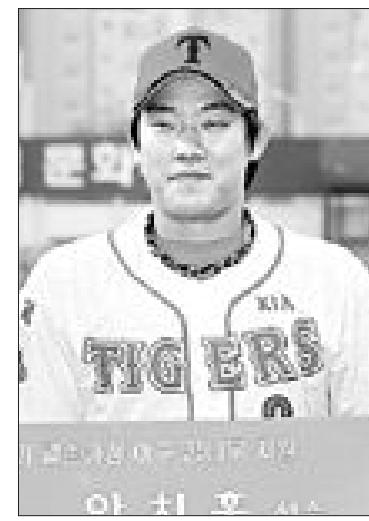
이종범은 상금으로 받는 돈을 모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고 있다.

이종범은 "힘들게 운동을 했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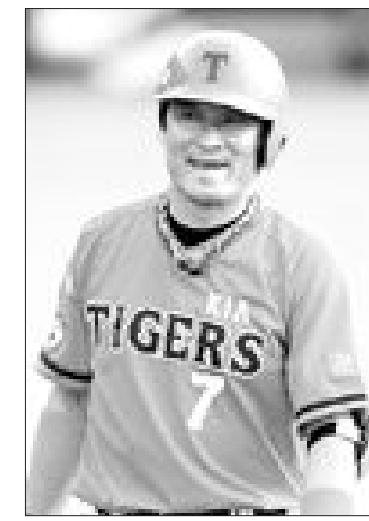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나의 도움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범은 "상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상금에 대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안치홍



이종범



이용규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며 "언젠가는 장학재단 등을 만들어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용규도 선행에 앞장서는 선수 중

의 하나다.

이용규는 올 시즌 연봉계약을 마무

리 지은 뒤 구단 측에 먼저 안타와 도루 한 개당 2만원씩을 적립해 불우이웃돕는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팬들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줄까 고민하다가 기부를 생각

하게 됐다"며 "시즌이 끝나면 직접 복

지시설을 방문해 적립금액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상으로 100여일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이용규의 첫 기부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규는 그만큼 남은 하반기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불법 중국어선 단속 명 받았습니다”

## “너는 내 운명… 당신의 남자 되겠다”

작년 100대 1 뚫고 해양 경찰된 해남 이주여성 중국댁 김영옥씨



수업에 동생뻘 되는 동료의 도움으로 전체 150명 가운데 중위권 성적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바다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

다"고 말했다.

김 순경은 '억척 중국댁'으로 유명하다. 중국에서 해남으로 시집온 지 9년 만에 한국에서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했는가 하면, 중국어 실력을 살려 대불대 중국어과에 편입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1남 1녀의 억척 아줌마다.

김 순경은 "한 번 배를 타면 일주일간 나가는 데 아이들을 직접 봄을 수 없어 걱정"이라며 "하지만 당분간 남편에게 맡기고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김봉호 前 국회부의장 둘째 아들 암 투병 여배우 장진영과 순애보



해남 출신의 전 국회의원 아들과 여자연예인의 순애보가 밝혀지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위암 투병 중인 장진영(사진)과 그의 연인 김모(43)씨. 제15대 국회 부의장을 지닌 해남 출신 김봉호 전 국회의원의 차남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장진영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장진영은 서울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그만 만나자"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장진영은 해어지겠다는 각오로 일부러 모질게 대했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혼자 마음을 정리했다.

자신의 건강 악화가 미혼남인 상대에게 부담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

장진영은 당시 김씨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

았지만 "결별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김씨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더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자신의 몸 상태를 고백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오늘부터 당신의 남자가 되겠다"

고 나섰다.

그런 뒤 김씨의 혼신적인 사랑이 이어졌다. 장진영의 병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켰고, 퇴원 후 청계산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장진영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껌짜 이벤트도 만들어 연인을 웃게 짖게 했다.

두 사람의 교제